광주 소상공인 2000억 특례보증 '역대 최대'

시,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7곳과 협약 체결
전년비 300억 ↑…1년간 이자 3~4% 지원

광주시는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1700억원보다 3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일선 광주은행장, 박승현 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지점장, 장창용 KB국민은행 충청호남영업추진그룹 부행장, 임철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김국환 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장, 황우열 카카오뱅크 여신사업본부장, 윤석하 우리은행 광주전남제주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광주시와 금융기관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조성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41억원과 이자 지원금 68억원 등 총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는 광주시와 금융권이 총 144억원을 광주신보에 출연해 상반기 1500억원, 하반기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 보증액 중 500억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접 23개 동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3~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신용평점 839점 이하 350점 이상인 중·저신용자의 경우 1%를 추가 지원해 최대 4%까지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전 업종이다.

광주신보의 심사와 보증을 거쳐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점수 350점 이상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2년·4년·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 코픽스(COFIX)+1.5~1.6% 또는 CD금리(91일물)+1.5~1.6%가 적용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광주신보는 올해부터 신청·심사·보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자동 심사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한 보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오는 26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보증드림' 앱을 통해 재단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확대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 지원을 비롯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국민 55% "올해 소비 늘릴 것"…최대 리스크는 '고환율·고물가'

한경협 설문…상위 60% '확대'·하위 40% '축소' 양극화

올해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지난해보다 소비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60%까지는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더 많고, 나머지 하위 40%는 줄이겠다는 계획이 더 많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를 전년 대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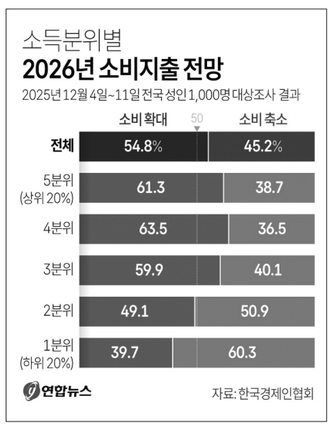
비율로는 0~5% 늘린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고, 5~10%는 13.9%, 10~15%는 13.9% 등이었다.

반면 45.2%는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0~5%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13.7%였고, -5~-10%(9%), -10~-15%(7.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40%(1~2분위)는 올해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상위 60%(3~5분위)는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득을 줄이겠다는 경우는 하위 20%(1분위)에서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분위(50.9%), 3분위(40.1%), 5분위(38.7%), 4분위(36.5%) 순이었다.

소비를 늘리는 이유로는 소비인식 변화(생활환경·가치관 변화)가 18.7%로 가장 많이 나왔다. 취업 기대 및 근로소득 증가(14.4%), 물가안정(1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비를 줄이는 이유로는 고물가(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소득 감소(21.7%), 자산 및 기타소득 감소(9.2%) 등이 나왔다.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리스크로는 응답자의 44.1%가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지목했다.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5.6%), 민간 부채 및 금융 불안(12.1%) 등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3.3%)이 올해 하반기 이후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 하반기(22.4%), 2027년(19.3%, 상반기 13.9%·하반기 5.4%), 2028년 이후(11.6%) 순이었다.

한경협은 소비 계획에 비해 실제 소비 여력이 부족하거나 향후 소비 회복이 일부 계층에 국한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며 소비 여력 제고와 저소득층의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오비맥주는 글로벌 인사 평가기관 최고 고용주협회의 '2026 최우수 고용기업'에 선정됐다.

오비맥주, 5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오비맥주는 글로벌 인사 평가기관 최고 고용주협회(Top Employers Institute)의 '2026 최우수 고용기업(Top Employer)'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5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국내 1위의 영예도 안았다.

최고 고용주협회는 전 세계 125개국 2400여 개 기업을 평가해 최우수 고용기업을 선정했다. 협회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Steer), 조직(Shape), 채용(Attract), 직원 역량 개발(Develop), 직원 교류(Engage), 융합(Unite) 등 총 6개 인사 영역을 평가한다. 6개의 영역을 하위 20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후, 이를 3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 전문가 집단의 전방위적인 평가와 교차 검증까지 거쳐 공신력을 더했다.

오비맥주는 이번 평가에서 6개 인사 영역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운영과 조직, 채용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인사 전략, 근무환경, 인재확보, 비즈니스 전략, 디지털HR, 성과관리, 윤리관행 등 올해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총 11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인사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비맥주는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선진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근무지 자율선택제, 자율좌석제, 시차출근제 등을 통해 유연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년 '직원 몰입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부서별 개선 과제에 직접 반영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 수행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고,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리더십 세미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성평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동계 교사 금융·경제연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완근)는 지난 21일 '2026년 동계 교사 금융·경제 연수'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과 지난 2024년 3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교육청과 연계해 추진했다.

이번 연수에는 광주·전남지역 50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참석해 중앙은행의 역사와 발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개인 자산운용 및 재무설계 등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은행의 역사와 화폐 이야기,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방법 등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경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교사들의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연수가 계속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쌀소비 30년만에 '반토막'…즉석밥 하루 한 개도 안 먹어

1인당 106.5kg→작년 53.9kg
양곡 소비량도 역대 최소치
떡·과자 등 식료품 제조 늘어
원료용 쌀은 첫 90만t 돌파

1인당 하루 쌀 소비가 즉석밥 한 개 분량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품 원료로 쌀을 사용한 양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3.9kg으로 전년보다 3.4%(1.9kg) 감소했다.

지속적으로 감소한 쌀 소비량은 106.5kg을 소비하던 1995년 소비량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196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갈아치웠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평균 147.7g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먹는 즉석밥의 양(210g)보다 적은 양이었다.

쌀과 보리쌀·밀가루·잡곡 등 기타 양곡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2.5kg으로 전년 대비 3.0%(1.9kg) 줄었다.

마찬가지로 1995년 소비량(117.9kg)의 절반 수준이며, 역대 최소치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하지만 떡이나 주정 등 식료품 소비는 늘어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2025년 처음으로 90만t을 넘었다.

지난해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에서 제품의 원료로 쌀을 사용한 양은 93만2102t으로 보다 6.7%(5만8739t)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90만t을 넘어 역대 최대치다.

떡, 즉석밥, 쌀과자 등을 만드는 식료품 제조업에서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65만8262t으로 12.6%(7만3650t) 증가했다.

반면 탁주, 주정, 식혜 등을 주로 생산하는 음료 제조업에서는 전년 대비 27만3840t으로 5.2%(1만4911t) 감소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이 39.0% 늘어 1만4642t을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떡류 제조업이 32.1%로 뒤를 이었다.

쌀 소비량이 많은 업종 비중은 떡류 제조업(28.3%), 주정 제조업(23.2%),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6.6%),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6.5%) 순이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농협 전남본부, 광양 산불 피해 농업인 긴급 지원

식사·구호물품 등 제공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광양시 옥곡면과 진상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광양시지부, 광양동부농협, 진상농협과 함께 22일 피해 현장을 찾아 농업 부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산불 피해로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해 즉석밥과 컵라면, 생수, 과일 등 구호물품 200세트를 대피소에 전달했다. 또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피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농작물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